

보도시점 2025. 8. 28.(목) 11:30 배포 2025. 8. 27.(수)

## 환경부 장관, “김포 거물대리,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만들겠다”

- 환경정화·탄소중립·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모범사례 실현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8일 오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지역을 방문하여 환경오염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포 거물대리 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이 지역의 이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김포시와 힘을 합쳐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포 거물대리 일원 4.9km<sup>2</sup>(149만평) 부지에 2033년까지 오염 토양 정화, 재생에너지·녹색교통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오염피해 지역 복원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사업 예정지 현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받은 후 관계기관과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6750)
		담당자	사무관	류경호 (044-201-6766)

**□ 배경 및 경과**

- (배경)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발생\* 및 인구 유출 등 지역 환경·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로운 환경재생사업 추진

\* 주물공장 등 대기 중 중금속 분진 배출로 198명 피해 인정('19~'25.5, 의료비 등 15.5억원)

- (경과) '21.1. 예타 용역 착수, '22.2~9. 예타 의뢰 및 부적합 통보(경제성 부족), '23.8. 예타 재의뢰 및 MOU 체결(환경부-김포시-수자원공사), '24.4. 예타 통과

**□ 주요 사업 내용**

- (조성 방향) △환경정화·복원, 탄소중립 등 환경재생 선도모델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치유에 기여

- ◆ (토양정화) 오염토양 정밀조사('23.11~'26.4, 69억) 및 토지이용계획 연계 정화계획 수립
- ◆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녹색교통, 자원순환, 탄소흡수원 등 확충
- ◆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기초시설 설치, 영세공장·원주민 이주지원(용지 우선 공급 등)

- (내용) 기간 '23~'33년(11년), 면적 4.9km<sup>2</sup>(149만평), 총사업비 5조 7,520억원 추정, 기대효과 약 16조 2천억원 생산유발, 약 11만 9천명 고용창출

**□ 향후 계획**

- 토지이용계획 수립('26), 개발·실시계획 수립('27~'28), 착공('29)